

기성용 氣찬 활약, 맨유 쓰러뜨리다



풀타임 출전 선덜랜드 2-1 승

중원 지휘로 승리 견인 '평점 7'

잉글랜드 프로축구 정규리그 최하위 선덜랜드가 리그컵 준결승 첫 경기에서 '위기의 명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 충격의 3연패를 안겼다.

선덜랜드는 8일(한국시간)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시즌 캐피털원컵 준결승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선덜랜드의 '중원사령관'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적시 적소에 볼을 뿌려주며 소속팀의 승리를 지휘했다.

이날 승리로 프리미어리그 '꼴찌'인 선덜랜드는 22일 맨체스터 원정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선덜랜드가 맨유에 승리를 거둔 것은 2000년 11월 28일 리그컵 경기 이후 13년 1개월여만이다. 맨유의 선덜랜드 전 20경기 무패 행진도 끝났다.

맨유는 토토넘 히스파와의 정규리그 경기(1-2 패)부터 시작된 연패 기록을 3경기까지 늘렸고 축구협회(FA)컵에서도 탈락한 터라 올시즌 무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데아비드 모예스 맨유 감독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선덜랜드는 전반 47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리아언 각스의 자책골로 먼저 달아났다. 서비스티안 라르손이 울린 프리킥을 웨스 브라운이 골대 왼쪽에서 반대편을 향해 짧은 땅볼 크로스로 연결했다. 공을 향해 쇄도 하던 필립 바슬리가 각스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공은 각스의 발을 맞고 맨유 골문으로 굴러들어갔다.

맨유는 후반 7분 네마냐 비디치의 헤딩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반 11분 교체 투입된 애덤 존슨(선덜랜드)의 폭발적인 드리블이 살아나면서 흐름을 내줬다. 후반 19분, 존슨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파비오 보리니가 골로 연결시키면서 선덜랜드가 결국 승리했다.

한편 풀타임 활약으로 팀 승리에 이바지한 기성용은 영국 스포츠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로부터 팀 평균 평점인 7점을 받았다. 전문 사이트 골닷컴도 "수비형 미드필더인 기성용이 전반전 동안 팀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줬다"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영국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기성용이 8일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맨유와의 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서 대니 웰벡(오른쪽)과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 이적시장, 호남만 'So Hot'

전남 7명·광주 9명·전북 5명 새얼굴 영입

타구단들, 기업 자금난에 전력 재정비만

얼어붙은 K리그 이적시장, 호남은 뜨겁다.

K리그 클래식과 월드컵 리그의 각 팀들이 2014시즌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새해 훈련이 시작됐고 전력 재정비를 위한 선수 영입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뜨겁게 시작됐지만 K리그 이적 시장은 예전에 비하면 얼어붙어 있다. 지금 문제로 기업구단들이 몸을 움츠리면서 이적시장을 움직이는 돈의 선순환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리그의 전제적인 분위기와 달리 호남은 뜨겁다. 전남 드래곤즈가 빨리 개막전에 출전해 8골 8도움을 기록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고, 대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새우로 스트라이커를 소화할 정도로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남은 8일 대구에서 미드필더 레안드리뉴(30)와 송창호(29)를 불러들이며 선수 영입에 마침표를 찍었다.

레안드리뉴는 지난 2시즌 대구 소속으로

경험으로 허리를 보강한 전남은 앞서 현영민·마상훈·김영우·스테판·크리즈만에게 유니폼을 입히며 주요 포지션을 고루 보강하는 등 가장 분주하게 움직여 가장 먼저 팀구성을 완료했다.

전남의 공격적인 영입에는 '명가재집'이라는 별표가 있다. 전남은 지난 2년 연속 하위 스플릿에서 머물며 우승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해왔다. 올 시즌은 청립 20년을 맞는 해. 앞선 부진을 털고 성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전남을 분주하게 움직였다.

광주도 올 시즌은 반드시 뭉개를 보여줘야 하는 허다. 지난해 세 번째 시즌을 월드컵 리그에서 보내면서 안팎으로 눈치를 봐야했다.

시민구단이라 제약도 많고,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우려를 씻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광주의 운명이다.

광주는 7명을 빼고 선수단 물갈이를 하면서 이적생으로 팀을 채우고 있다. 일단 프로 10년 차 베�테랑 수비수 최성환을 필두로 첫 훈련부터 9명의 이적생이 얼굴을 보였다. 두 명의 골키퍼를 포함해 두 세 명의 경험자들이 추가로 광주 합류를 준비하면서 이적 시



전남 송창호

전남 레안드리뉴

장을 닦고 있다.

'우승'을 목표로 한 전북의 겨울도 화끈한다. 공격수 한교원과 수비수 최보경을 시작으로 자유계약(FA) 신분의 '진공청소기' 김남일과 이승렬·김인성을 동시에 영입하는 등 이를 새 5명을 새 식구로 맞았다. 아직도 공격지원과 골키퍼 보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북은 여전히 이적 시장의 큰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에 대표팀 복귀 묻겠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았다.

그러나 홍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대표팀 주전선수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베테랑의 필요성이 대두 돼서다.

홍 감독은 "선수들의 나이가 어린 것은 큰 문제가 되는 않지만 부족함이 될 수는 있다"며 "월드컵 무대는 모든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만이나 노장들의 경험에 중요하다는 게 홍 감독의 생각.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에도 대표팀에 합류한 안정환, 김남일, 이운재 등 베테랑 선수들이 후배들에게 좋은 동기 부여가 되면서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의 기쁨을 맛봤다.

홍 감독은 "박지성과 대표팀 복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나의 입장은 박지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차원이다"며 "박지성이 복귀했을 때 다른 선수들이 느끼는 부분이라면 박지성의 몸 상태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지성의 생각"이라며 "박지성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연합뉴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 한땀 한땀 직접 페어에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고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흉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so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흉플러스 건너편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

